

인격의 구조 : 칼 융을 중심으로

안 태 길

〈실천신학·전임강사〉

I. 인격의 구조에 관한 융의 사상의 발전

융이 처음으로 콤플렉스들(complexes)과 개성화(individuation) 사상을 제시한 것은 자신의 의학 박사 학위 논문에서였다.¹ 비록 이러한 개념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초보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았으나, 무의식에 관한 개념과 더불어 그의 인격 이론의 요점이 되었으며, 후에 분석 심리학으로 불리게 된 융 심리학 탄생의 서막이 되었다. 정신의 무의식적 과정들에 관한 개념은 프로이드와 융 이전에 이미 긴 역사를 갖고 있었다.² 19세기 유럽의 분위기에 영향을 입은 나머지, 융은 헬라 및 라틴

¹ Carl Gustav Jung, "On the Psychology and Pathology of So-Called Occult Phenomena," (1902)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Michael Fordham, and Gerhard Adler. Trans. R. F. C. Hull (New York : Pantheon Books, Inc., 1957), I, pars. 1~150.

² L. L. Whyte, *The Unconscious Before Freud* (New York : Basic Books, 1960), p. 63. Whyte에 의하면, 이 개념은 1700년대에 탄생하여, 1800년대에 논의되었으며, 1900년대에는 유효한 개념이 되었다. 최면술의 개념은 F. A. Mesmer(1733~181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프랑스의 분석 심리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나아가 프로이드와 융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신학적 전통, 인류학자들, 역사가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와 프리드리히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에게도 익숙하였다.³ 융의 사상의 기초는 정신질환자들과 신경증 환자들과의 직접적인 자신의 체험, 그의 가문의 내력, 자기 내면 세계 속의 갈등과 투쟁 및 이에 대한 자기 분석에 있었다.⁴

융의 아버지 요한(Johann)은 스위스 개혁신교회 목사로 동방 종교들과 고전들을 열심히 탐구하였으며 어린 시절의 융에게 라틴어를 가르쳤다. 융은 자기 아버지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신뢰할만 하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그에 의하면 융의 어머니 Emilie Preiswerk는 동적이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두 가지 퍼스널리티, 곧 “하나는 악의 없는 인간적인 면과 다른 하나는 신비로우면서도 괴기한 면”을 아울러 갖고 있었다.⁵ 융은 기독교 신화에 대해 검증 없는 맹목적 신앙을 갖고 있던 아버지에게 대해 환멸을 느꼈다.⁶ 초기의 경험들은 융에게 정신 현상의 실재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융은 아버지를 뒷받쳐주거나 양육시켜 주지 못했던 기독교 신화 이외의 다른 신화를 발견하기 위한 투쟁에 나

³ Carl Gustav Jung, *Memories, Dreams, Reflections*, trans., Richard and Clara Winston (New York : Vintage Books, 1989), pp. 73~74. 융에 의하면, 그의 삼촌과 사촌들은 교회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도그마와 교리들을 논하였지만, 그에게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자신의 과학적 탐구들을 균형 잡는데 더 중요함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융은 자신이 내적 체험들과 통찰력에 있어서 비밀스런 존재로 남아버린 니체를 닮게 될까 봐 두려워하였다.

⁴ Mary Ann Mattoon, *Jungian Psychology in Perspective* (New York : The Free Press, 1981), pp. 1~3.

⁵ Jung, *Memories, Dreams, Reflections*, pp. 48~49. 융은 어머니의 영향 아래 1890년대의 강신술 또는 교령술(spiritualism)이라 할 수 있는 오컬트(Occult)현상과 영매술적 행위에 접하게 되었다. 융은 가족 “교령회(seances)”에 참석하였으며 교령회의 무당(또는 영매)이었던 사촌 Helene Preiswerk에 매혹당하였다.

⁶ *Ibid.*, p. 8, pp. 42~43, pp. 55~56. 융은 “부친에 대한 가장 예절한 동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술회하였다.

서게 된다. 융에게 있어서 신화는 두 가지 극단들, 곧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 또는 두 가지 인격 구조들의 화해에 있었다.⁷

융의 아버지는 융이 의학 훈련을 받기 위해 바젤 대학에 들어갔던 해에 사망하였다. 1879년에 처음 출판된 Richard von Krafft-Ebing의 “정신의학의 교과서”(Textbook of Psychiatry)를 접한 후 융의 정신의학에 대한 관심은 꽃을 피우게 된다. 융은 1900년에 의학 훈련을 마쳤으며, 프로이트가 *The Interpretation of Dreams*를 출판한 그 해에 쥐리히의 Burgholzli 병원의 의사 조수로 임명되었다. 1902년에서 1903년 동안은 파리에서 Pierre Janet와 함께 연구하였다. 그 당시에는 “dementia praecox”로 불렸던 정신 분열증 환자들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사로서의 직업적인 삶을 통해 융은 집단 무의식(the collective unconscious)과 원초적 모형(archetype, 이하 원형)이란 통찰력 있는 개념들을 발견하게 된다.⁸ 의사로서의 그의 전문적이고도 직업적인 생애의 후반부에 융은 단어 연상 테스트를 개발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자율적인 콤플렉스 또는 갈등 지역의 이론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였다.⁹

⁷ Peter O'Connor, *Understanding Jung, Understanding Yourself* (New York : Paulist Press, 1985), pp. 1~10.

⁸ Carl Gustav Jung, “The Psychology of Dementia Praecox”,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Michael Fordham, and Gerhard Adler. Trans., F.F.C. Hull (New York : Pantheon Books, Inc., 1960), III. 융은 실험 심리학을 정신 의학 분야에 적용하여 정신 이상 현상들과 성질에 대해 동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작업은 이러한 연구 작업의 단계들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는 것이었다.

⁹ Carl Gustav Jung, “The Association Method”,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et al. Trans., Leopold Stein and Diana Rivier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II. 영혼(Psyche)의 성격과 구조에 관한 융의 개념

융은 원초적으로 온전한 인격을 *psyche*(사이키, 헬라어는 프슈케, 이하 영혼으로 번역) 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한없이 복잡한 것이다.¹⁰ 영혼은 모든 정신적인 과정들, 곧 생각들, 감정들 및 행위들을 포함하며 사람이 주위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영혼의 구성 요소들은 정신적인 내용들의 결합들로 관찰이 가능하다.¹¹

의식과 무의식

영혼은 두 가지 대조적인 영역들, 곧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보완하고 유지시켜주는 보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¹² 자아(ego)는 이 두 영역들 곧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존재하며, 지대한 지속성과 주체성을 갖고서 의식의 중심부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표상들(representations)의 복합체이다.¹³ 자아는 의식에의 “문지기”(gate-

¹⁰ Carl Gustav Jung, “The Structure of the Psyche”,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et al. Trans., R. F. C. Hul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VIII, pars. 283~342.

¹¹ Carl Gustav Jung, “Dogma and Natural Symbols”,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Michael fordham, and Gerhard Adler. Trans., R. F. C. Hull (New York : Pantheon Books, Inc., 1958), XI, par. 66.

¹² Carl Gustav Jung, “On the Nature of the Psyche”,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et al. Trans., R. F. C. Hul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VIII, pars. 381~387.

¹³ Carl Gustav Jung, “Psychological Types”,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et al. Trans., R. F. C. Hul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VI, par. 706. 본서는 융의 전집중 최후에 나올 작품이었었다. 융은 자신이 프로이드와 아들러와

keeper)로 감정들, 생각들, 그리고 지각 작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아 형성은 주위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 인간의 신체가 요구하는 것들 간의 “충돌”(collision)로 시작된다. 출생시 아기는 집단 무의식 속에 감싸져 있으며, 자아 발달은 아기가 원형적 세계로부터 구별함에 따라 시작된다. 자아를 이드(id)와 초자아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으로 이해한 프로이드와는 달리 융은 자아의 행위 지시를 갈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⁴ 융의 자아와 심리학적 성격 유형들에 관한 이해의 준비 작업은 프로이드와 결별한 1913년과 1919년 사이의 “휴한기”(fallow period)의 때에 이루어졌다. 융은 이 시기를 “내적 불확실성” 또는 “방향 감각의 상실”의 때로 칭했으며, 이 시기는 그가 자신의 무의식의 상들(images)로 사로잡혀 있었을 때로 인간의 세계, 동료 인간들 및 사물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싶어하던 때였다.¹⁵ 1919년부터 1944년 심한 질환이 발병하기까지 융은 그의 사상의 골자를 대부분 글로 발표하였는데 다수의 논문들이 후에 전집으로 출판되었다.¹⁶

1. 의식의 기능들

융은 의식을 “자아와 정신적인 내용들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신적 기능을 “다양한 주위 환경들 하에서도 이론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며 그리고 그 순간적인 내용들과도 독자성을 유지하는 어떤 형태의 정신적인 활동”으로 보았다.¹⁷ 이것은 정신적인 자료

다른 점들을 설명할 필요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Memories, Dreams, Reflections*의 6장과 7장을 보라.

¹⁴ Carl Gustav Jung, “The Ego”,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et al. Trans., R. F. C. Hul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IX, par. 1~12.

¹⁵ Jung, *Memories, Dreams, Reflections*, p. 170.

¹⁶ Mattoon, *Jungian Psychology in Perspective*, pp. 24~25.

¹⁷ Jung, “Psychological Types”, VI, par. 700, par. 731.

들을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양식을 수반한다. 개인에게는 네 종류의 정신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는 나머지 네 기능 모두가 현재 할지라도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이 기능들은 발전과 상이점을 겪어 간다. 생각(thinking)과 감정(feeling)의 두 기능은 합리적인 기능들로 정의하는데 그것은 이들이 평가와 판단에 관계하기 때문이며, 감각(sensation)과 직관(intuition) 두 가지 기능은 지각 작용을 하므로 비합리적인 기능으로 정의하였다.¹⁸

생각은 논리적인 유추들, 사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기능이며, 반면에 감정은 유쾌하거나 불유쾌한 감정들을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기능이었다. 융에 의하면, 생각은 자체의 법칙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상들의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연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심리적 기능이다.¹⁹ 융은 감정을 자아와 일정한 내용간에 발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 과정은 그 내용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었다.²⁰

감각은 인체 내부 기관들의 변화 과정들에서 기인한 감각들과 감각 기관들의 자극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융은 감각을 “신체적 자극들의 인식을 전달하는 정신의 기능”으로 정의하였다.²¹ 이와는 대조적으로 직관은 사물들의 내재적 잠재 가능성들에 대한 무의식적 “내적 인식”을 위한 능력을 통해 지각하였다. 융에게 있어서 직관은 무의식적으로 그 자체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제시된 하나의 내용으로서의 지각 작용들을 내용의 기원에 관한 설명 없이 전달하기 위한 기능이었다.²² 이 네 가지 기능들은 일종의 전체성을 산출한다. 융은 다음과 같이 썼다.

¹⁸ *Ibid.*, par. 731. 융은 수년간의 체험을 통해 영향을 입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선형적인 이유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기능들은 상호 관련성도 상호 감수 분열 할 수도 없으므로 서로 구분되는 것이었다.

¹⁹ *Ibid.*, par. 830.

²⁰ *Ibid.*, par. 724.

²¹ Jung, “Psychological Types”, VI, par. 792.

²² *Ibid.*, par. 770.

감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립시켜 주었고, 생각은 그 의미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며, 감정은 우리에게 그것의 값어치를 말해주며, 그리고 직관은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에 관한 여러 가능성들을 지적해 준다.²³

일반적으로 삶의 두 번째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열등한 기능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해 왔으나, 때로 이 네 가지 기능 중 어느 하나도 발전하지 못했다. 자아 의식은 주요 기능의 성장 및 강화와 평행한다.

2. 태도의 유형들

프로이드와 자신의 결별을 검토해 보면서도 융은 1911년에 있었던 아들러(Alfred Adler)의 프로이드와의 논쟁과 연이은 프로이드 학파로부터의 탈퇴 사건에 의문을 가졌다. 융은 그들의 결별은 세상과 사물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믿었다. 융은 역사와 문학을 연구한 결과 관념 형태(ideology)에 있어서 서로 경쟁적인 짝들간에는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찾아내었다. 융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경쟁적인 짝들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의 두 가지 양식(mode)을 예표하였다. 이 양식들을 융은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라고 불렀다.²⁴

융에 의하면, 우리는 외부 및 내부의 경험들에 대해 선형적인 소재 인식(orientation)을 가진 영혼을 갖고서 특정한 태도로 반응을 해왔다.²⁵ 외향성 태도는 대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정신 에너지로 주목되어지

²³ *Ibid.*, par. 958.

²⁴ Jung, *Memories, Dreams, Reflections*, pp. 153~154. 융은 아들러에 대한 프로이드의 반대를 프로이드와 니체간의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논쟁과 비교하였다. 예로, 한가지 동기를 부여하는 정신의 힘으로서의 니체의 권력에의 욕구(the power drive)에 반대하는 것으로서의 프로이드의 성애적 본능(eros)설. 융의 “Psychological Types,” VI, pars. 88~95를 참조하라.

며 외부의 세계,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다. 외향의 의미는 주체로부터 대상으로의 에너지의 전환과 흐름을 의미한다. 외향성 기질이 있는 사람은 행위들, 생각들 및 감정들을 통해 외부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존성을 계속 유지한다.²⁶

내향성 태도는 주관적 요소들과 내면의 반응들에 초점을 두고서 주체를 향해 안으로 흐르는 정신 에너지로 주목된다. 내향성 태도를 가진 사람은 행위들, 생각들 및 감정들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객관성보다 주관성에 우위를 두는 태도를 나타낸다.²⁷

태도 유형은 우리의 기능 유형보다 출생 때로부터 더욱 결정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비록 기능 유형은 의식을 통하여 변형되거나 억압될 수도 있으나, 태도 유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물학적인 요소들이나 “분석”과 같은 그러한 정신 발달에 의한 자발적 변형을 통한 영혼의 “내적 재구성”(inner reconstruction)에 의지하는 것 뿐이었다.²⁸ 외향성과 내향성간의 보충적인 관계는 의식이 내향화될 때, 그 의식은 외향화될 수도 있으며(그리고 이와 반대의 경우도), 그러한 때에 보충 관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²⁵ Jung, “Psychological Types”, VI, par. 687.

²⁶ *Ibid.*, par. 710.

²⁷ Jung, “Psychological Types”, VI, par. 769. 초기에 융은 생각 유형을 내향성과 감정 유형을 외향성과 동일시하여 생각과 감정 유형을 내향성 및 외향성으로부터 구분하지 않았다. 후기에 융은 범주들로서의 외향성과 내향성 유형을 기능 유형들보다 상위에 두었다. 참고 “The Structure of the Unconscious”,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et al. Trans., R. F. C. Hul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VII, pars. 462, 482.

²⁸ Jolande Jacobi, *The Psychology of Jung*, trans., K. W. Bash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3), p. 19.

3. 무의식의 내용들

무의식은 개인적인 차원과 집단적인 차원 두 가지가 있다. 융은 무의식을 “오로지 심리학적인 개념”이며 형이상학적인 성격의 개념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무의식은 의식하지 않는 모든 정신적인 내용들 또는 감정들과 관련되며 그래서 어떤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든 자아와 관계하지 않는다.²⁹ 융에게 있어서 개인 무의식은 “잊혀졌거나, 억압당했거나, 잠재 의식 속에서 인식되는” 내용들을 위한 영역이었다.³⁰ 융은 무의식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프로이드와 달랐다.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이드(id), 자아(ego)의 일부들 및 무의식적인 것으로서의 초자아(superego)를 포함시킴으로 보다 의식적인 내용들이 억압당한 영역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융의 개인 무의식은 프로이드의 전의식과 잠재 의식을 포함하였다.³¹

집단 무의식은 융에 의하면 오직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일반 정신 기능의 가능성, 곧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두뇌 구조”와 같은 결과적인 내용들만을 포함하였다.³² 이러한 집단 무의식의 내용들은 위험, 부모와 아이간의 관계들, 사랑, 출생, 두려움 및 사망과 같은 원시 시대 이래로 전 우주적인 인간 경험들에 관한 개인의 전형적인 반응들을 축적한 것이었다. 집단 무의식은 초보적인 인간성의 특징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리 정돈하는 의식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었다.³³

²⁹ Jung, “Psychological Types”, VI, par. 837.

³⁰ *Ibid.*, par. 842.

³¹ Jung, “The Structure of the Unconscious”, VII, pars. 442~446. 융은 프로이드와 자신의 이론과 범주들을 비교 제시하였다.

³² Jung, “Psychological Types”, VI, par. 842.

³³ Carl Gustav Jung, “The Concept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et al. Trans., R. F. C. Hul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IX, pars. 87~110. 융은 집단 무의식의 정의, 심리학에 대한 집단 무의식 개념의 중요성과 그 증거에 대한 설명 및 파라노이드 정신 분열증에 걸린 사람

a. 콤플렉스와 증상들

자아의 인식을 받지 못한 경험들은 개인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 여러 집단의 내용들은 아마도 하나의 덩어리(cluster), 또는 복합체(complex)를 형성할 것이다. 쥐리히 대학 정신 병동에서 쓴 융의 글에는 “감정의 색채를 띤 콤플렉스”란 용어를 무의식 속의 “감정의 색채를 띤 집단의 표상”의 현상으로 고쳐 불렀으며, 이후 이 용어를 짧게 “콤플렉스”(complex)라 불렀다. 프로이드와 융은 “콤플렉스들”(complexes)이라 불린 정신적 요인들의 성격과 결과들에 관해 처음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합의로 둘은 동지가 되었다. 그러나 1913년에 융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구분하였으며 콤플렉스들을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 정신생활의 요점으로서 콤플렉스는 융 이론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것은 정신활동은 콤플렉스들이 없이는 정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³⁴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콤플렉스들은 오직 질병의 현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융은 콤플렉스들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융은 목적론적인 접근법을 취했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콤플렉스란 뭔가 양립할 수 없는 어떤 것, 동화될 수 없는 것, 그리고 갈등하는 존재들-아마도 어떤 장애물, 그러나 또한 더 큰 노력을 하게 하는 어떤 자극 그리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성취의 가능성들의 창을 의미한다.³⁵

의 환상을 제시하였다.

³⁴ Carl Gustav Jung,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Trans., W. S. Dell and Cary F. Baynes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33), p. 91.

³⁵ *Ibid.*, p. 91. 1926년 이후 융의 콤플렉스 이론은 더욱 발전하였다. 그는 어떤 콤플렉스들은 어떤 실제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중년의 정신적 위기들로 나타나는 것들은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다. Jolande Jacobi, *Complex/Archetype/Symbol*, trans., Ralph Manheim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59), pp. 21~22.

b. 원형들(Archetypes)

융은 1912년 무의식의 심리학(The Psychology of the Unconscious)이란 책에서 “원시적 이미지들”(primordial images)로서 인류의 우주적 삶의 역사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화적인 주제들에 관해 처음 이야기 했다. 1916년에는 분석 심리학에 관한 두 가지 논문들(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이란 글에서 “집단 무의식의 우월성”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융이 “원형들”(archetypes)이란 용어를 소개한 것은 1919년이 었다. 1946년 이후 융은 인식할 수 없는 원형, 곧 “원형 그 본질”과 실제 의식의 분야에 현존하는 실현된 원형을 구분 기술하였다.³⁶ 실현된 원형은 그 발생하는 형/배열(constellation)에 기초하여 형태를 계속적으로 바꾸어 가며 “원형적 상, 예표 또는 과정”으로서 나타났다.³⁷ 실현된 원형이 나타내주는 것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형태의 정신적 기능, 특수한 “실제적이지만 불가시적인 의식의 뿌리들인 어둡고, 원시적인 정신의 본능적인 자료들”의 의인화이었다.³⁸ 원형들은 수에 있어서 제한되었으며, 그들의 의미는 원시적 경험들로부터 계속 진화하였다. 이들은 인간들과 우주와 관계하는 하나님에 대해 선조들의 전체적인 지식을 나타내 주었다. 융은 개인의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몇 가지 원형들을 예시, 설명하였는데 다음의 것들이다. 페르소나(persona), 애니마

³⁶ 1936년의 한 강연에서 융은 선재 하는 형태의 원형이 이 분야의 다른 학자들에 의해 인정,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사방법론에서는 “동기들”(motifs)로 칭해졌고, Levy-Bruhl의 개념은 “집단적인 예표들”(representations collective), Hubert와 Mauss의 비교종교 연구방법론에서는 “상상의 범주들”(categories of the imagination)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었다. Jung, “The Concept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IX, par. 89.

³⁷ Jacobi, *The Psychology of C. G. Jung*, p. 40.

³⁸ Carl Gustav Jung, “The Psychology of the Child Archetype”,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et al. Trans. F. F. C. Hul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IX, par. 271. 그리고 Jung, “The Archetypes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IX, pars. 1~86 도 보라.

(anima), 애니무스(animus), 새도우(shadow) 및 셀프(self, 이하 자기).

c. 페르소나, 애니마와 애니무스, 새도우 그리고 자기

라틴어의 가면에서 나온 페르소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어지기 위해 세계에 제시된 인간 인격의 부분이다. 페르소나는 개성을 가장한 하나의 기능적 콤플렉스이지만, 그것은 적응을 목표로 한다.³⁹ 세 가지 요소들이 적절히 기능하는 페르소나를 설명해 준다. 첫째 그것으로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모델로 삼는 자아-이상(ego-ideal) 혹은 소원하는 이미지; 둘째 한 인간에 대한 특정한 주위 환경의 관점; 셋째 소원 이미지 또는 자아-이상의 실현을 제한하는 물리적 및 정신적 우발 사건들. 페르소나는 자아의 통제하에 있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한 사람의 페르소나가 외부의 집단에 의해 인정된 특징들로 지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대중 인격의 페르소나를 갖게 된다. 만약 자아가 약하면, 그 개인의 페르소나는 자신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타 성인들에 대해서도 부모 노릇하듯 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아를 위해 기능하게 될 것이다.⁴⁰

영혼의 “밖을 향한 얼굴”이 페르소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융은 “안을 향한 얼굴” 혹은 “영혼의 상”을 남성들에게는 애니마(anima) 여성들에게는 애니무스(animus)라고 불렀다. 융은 이 “애니마” “애니무스”를 자기 분석을 통해, 환자들의 꿈들과 환상들 속에서 그리고 후반부에는 수많은 형태의 종교, 신화들 그리고 문학 작품 속에서 발견하였다.⁴¹ 안을 향한 얼굴 또는 영혼의 상의 원형적 형태는 보충적인, 정신의 반성적

³⁹ Jung, “Psychological Types”, VI, par. 801.

⁴⁰ Carl Gustav Jung, “The Persona as a Segment of the Collective Psyche”,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et al. Trans., R. F. C. Hul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VII, pars. 243-253. Jacobi, *The Psychology*, pp. 26~30 을 보라.

⁴¹ Jung, *Memories, Dreams, Reflections*, pp. 185~189.

(contrasexual)인 부분을 나타내주며 그리고 그것은 그것에 대한 개인의 인격적 관계와 반성적인 것에 대한 개인의 경험 모두를 통합한다. 융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여성은 여성 의식을 지배적으로 갖고 있으며, 남성 의식은 주로 무의식적이다. 이와 반대로 남성도 그러하다. 안으로 향한 상들의 구체적인 것들에는 꿈들, 환상들 그리고 무의식의 기타 다른 표현들이 있다. 밖으로 향한 상들의 구체적인 것들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투사들이 있으며, 그것에 의해 자기(self)와 대면하게 된다. 애니마와 애니무스는 집단 무의식 속에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개인 무의식 속에도 부분적으로 존재한다.⁴²

“새도우”(shadow), 또는 “저 편”(other side)은 불가시적이지만 정신의 불가분리의 부분이다. 따라서 내면 속의 어떤 상징적 형태로 나타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로 투사된다. 자아는 자신의 새도우와 친숙해질 때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된다. 새도우에는 개인적 내용들과 집단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융은 개인의 실생활로 실현하지 못했거나 혹은 겨우 가까스로 실현한 영혼의 특징들인 “개인적 새도우”(personal shadow)와 집단 무의식의 일부이며 그리고 당시의 지배적 “시대정신”(zeitgeist)과도 정반대적인 “집단 새도우”(collective shadow)를 구별하였다.⁴³ 새도우는 무의식적일 때는 파괴적일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될 때 전인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다. 융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누구나 새도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의식 생활

⁴² Carl Gustav Jung, “Anima and Animus”,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et al. Trans., R. F. C. Hul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VII, pars. 296~340. 그리고 Carl Gustav Jung, “The Syzygy : Anima and Animus”,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et al. Trans. R. F. C. Hul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IX, pars. 20~42.

⁴³ Jung, “The Psychology of the Child Archetype”, IX, pars. 265~267.

속에 덜 구체화 될수록 더욱 검어지며 더 짙어진다…… 새도우는 단지 뭔가 열등한 것, 원시적으로 적응될 수 없는 것 그리고 거북한 것이며 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⁴⁴

자기(Self)는 전 인격, 곧 의식과 무의식 모두의 중심부이며 전 영역이다.⁴⁵ 영혼의 전체성에 관한 한, 자기는 초월적 개념이며, 왕들, 영웅들, 선지자들, 구세주들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로 꿈들, 신화들 그리고 동화들 속에 나타나거나 혹은 원, 십자표, 또는 “네모꼴 원형”과 같은 전체성 상징의 형태로 나타난다.⁴⁶ 의식적 인격이 삶의 가능성들을 직면함에 따라, 자기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공급받으러 집단 무의식에 의존한다.⁴⁷

⁴⁴ Carl Gustav Jung, “Psychology and Religion”,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Michael Fordham, and Gerhard Adler. Trans. F. F. C. Hull (New York : Pantheon Books, 1958), XI, pars. 131, 134.

⁴⁵ Carl Gustav Jung, “Individual Dream Symbolism in Relation to Alchemy”,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et al. Trans., R. F. C. Hul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XII, par. 44. 또한 Jung, “The Self”,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et al. Trans., R. F. C. Hul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IX, pars. 43~67 을 보라.

⁴⁶ Jung, “Psychological Types”, VI, pars. 789~791.

⁴⁷ Carl Gustav Jung, “The Function of the Unconscious”,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eds., Sir Herbert Read et al. Trans., R. F. C. Hul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VII, par. 274. 융은 전체적 자기에 속하는 “불확실한” 양의 무의식적 자료가 언제나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III. 융의 인격 구조에 대한 비판

의사로서 프로이드와 융은 자료들(주로 환자들)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정밀한 과학을 형성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보다 정확하고 엄격한 이론을 개발하는데 몰두하였다. 반면에 융은 심리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과 다름을 느끼고 자신의 이론을 변경하기 위한 문호를 더욱 개방하였으나 종종 애매하기도 하였다. 프로이드와 융 모두 “창의적 질병들”을 거쳐갔으나 융은 마음의 구조를 기술하는 대신 무의식의 국면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프로이드와 달리, 융은 이론을 성에 제한시키지 않았으며, 영적 생활과 종교 체험이 삶의 중심임을 긍정적으로 가정하고 이를 중요시하여 일생 동안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프로이드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융은 미래의 구상이 인격 개발만큼 중요함을 이해하였다. 영혼은 성숙으로 향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심리적이고도 영적인 미래는 이 성숙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었다. 집단 무의식에 대한 융의 이론과 삶에 대한 영적이고도 종교적인 체험의 중요성과 의미심장성에 대한 그의 이해는 정신 치유의 과업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융의 원형 이론 비판에서 Hobson은 융의 글에 확립되어 있는 거의 달성하기 어려운 네 가지 규범을 제시한다. 원형적인 상(image)은 그 상이 원형적인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자료는 반드시 특징적인 것이어야 하며,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의 자료 안에서도 규칙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그 상은 반드시 서로 다른 시대의 서로 다른 문화들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그 상은 반드시 비슷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 상은 반드시 문화병용을 통하여 얻어질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⁴⁸

신화들이나 동화들은 융의 이론이 요구하는 대로 문화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융의 원형 개념에 대한 Samuels의 비판은 결정론적이기는 하지만 장점은 있다.⁴⁹ 만약 한 개인이 원형적 경험과 심상으로 사로잡혀진다면, 이러한 선-주관적(pre-subjective)인 비현실적 비유(schema)에 직면한 그 개인의 의식적 삶은 얼마나 강력한가? “의지”(will)의 개념은 이 비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Samuels는 또한 융이 방어 기제의 중요성을 빠뜨렸음을 지적함으로 융의 자아 이론을 비판한다.⁵⁰ 불안은 우리의 존재성에 주어져 있는 것이므로 융이 우리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삶의 경험들과 외부 사건들을 충분히 허락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Peter Homans는 융의 사상의 3 가지 주요 주제를 논한다. 첫째 “프로이트 심리학의 성취 또는 완성”, 둘째 “일반 대중으로서의 현대인의 곤경에 특히 뛰어난 대책” 그리고 셋째 “전통 기독교의 재해석을 위할 수단.”⁵¹ 융은 프로이트를 현대 세속 문화의 일부로서 이해하였으며 따라서 프로이트의 사상과 전통 기독교 사상간에 긴장을 발견하였다. 융은 그의 두 가지 문화들로부터의 분리와 통합 모두를 필요로 하였으며, 그러므로 융은 의미의 “환원”과 “회복”을 수반하는 이중적인 기독교의 재해석 운동을 하였다. 융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집단 무의식 속의 원형들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환원적이었으나, 전통 기독교로부터 종교적 의미의 회복과 그들을 분석심리학으로 통합시키려고 하였으므로,

⁴⁸ R. Hobson, “The Archetypes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Analytical Psychology: A Modern Science*, ed., E. Fordham et al., (London : Heinemann, 1973), p. 279.

⁴⁹ Andrew Samuels, *Jung and the Post-Jungians*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85), p. 44.

⁵⁰ *Ibid.*, pp. 67~68.

⁵¹ Peter Homans, *Jung in Context*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p. 158.

Homans가 칭했듯이 “긍정의 해석학”(hermeneutics of affirmation)이란 명칭이 붙여졌다.⁵² 분명히 융은 조직화된 기독교와 과학적 경험론 사이에 있는 현대성의 긴장을 밝혀내었다. 융은 성경의 신화를 의심한 경험론자였으며 사람들이 무의식의 상징과 과위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융이 추구한 것은 “기독교의 정신-치유적 변형”이라는 Stein의 논지는 환원적 해석들과 갈등을 벌이면서도 기독교 교리들에 대한 주목할 만한 비판을 제시한다.⁵³

Pannenberg는 대상 작용(compensation)에 대한 융의 관점을 프로이트 심리학의 단점을 보강한 중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왜냐하면 융의 가설은 보충적인 무의식의 기능들을 영혼의 구조에 대한 표현들로 제시하는 대신에 원형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또한 융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자아에 대한 자기의 정신적 초월성으로서 긍정적으로 가정한다. 그렇게 함으로 자아를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부풀린다. Pannenberg에 있어서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최소화하고 집단 정신의 개념은 구체적인 인간 경험들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⁵⁴

여기서 우리는 여성해방신학자의 비판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Naomi Goldenberg는 융의 원형이론은 정신과 신체의 분리에 기초하므로 반-여성적이며 반-삶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 이유로 우리의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환상들이 대체로 우리 신체 밖의 어떤 실체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는 개념은 정신-신체 이분법을 영속화하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여성 해방 사상을 위해 보다 더 건강한 모델을 제시한다고 강변한다.⁵⁵

⁵² *Ibid.*, p. 184.

⁵³ Murray Stein, *Jung's Treatment of Christianity : The Psychotherapy of a Religious Tradition* (Wilmette : Chiron Publications, 1985).

⁵⁴ Wolfhart Pannenberg, *Anthropology in Theological Perspective*, Trans. Matthew J. O'Connell (Edinburgh : T. & T. Clark Ltd., 1985), p. 264.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을 악에 대한 책임성으로부터 제외한다는 융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님은 빛이므로 그 속에는 어둠이 없다는 요한 복음서의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융의 견해도 급진적인 악의 문제에 적절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 융의 이론은 “아래로부터의 기독교”를 옹호하고, 기독교를 “위로부터”는 통합하지 않으므로 예수를 단순한 한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융의 인격 이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근본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적절히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융의 이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이해를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왜곡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IV. 기독교 목회를 위한 융의 인격 구조 이론의 공헌

인격의 구조에 관한 융의 이론, 특히 집단 무의식에 대한 그의 초점은 진정한 종교 체험의 중요성과 인격의 전체성을 강조한다. 단테를 연구한 Hans Urs Von Balthasar는 단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을 위해 투쟁하였으나, 실제 그의 작품의 중심은 자신의 인격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Balthasar는 단테의 인격은 “우주의 최극단 한계들에 까지 뻗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우주적 콘텍스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⁵⁶ 단테에게 있어서 이것은 피조된 실체로서 역설적인 명성을 얻는 길이기도 했지만 또한 한 그리스도인 실체로서 심오한 겸손과 굴욕 속으로 밀쳐 내어짐을 당하는

⁵⁵ Naomi R. Goldenberg, “Archetypal Theory and the Separation of Mind and Body : Reason Enough to Turn to Freud?”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1 (1985), 55~72.

⁵⁶ Hans Urs Von Balthasar, *The Glory of the Lord : A Theological Aesthetics*, ed., John Riches. Trans., Andrew Louth et al., *Studies in Theological Style : Lay Styles*, Vol. III (San Francisco : Ignatius Press, 1986), p. 24.

것이기도 하였다. 용의 인격 이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자신의 인격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다. 우리의 인격들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격들을 최극단 우주의 한계에까지 뻗어가게 하는 종교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용에게 있어서 이것은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자기”에 대한 인식, 곧 자아를 능가하는 존재성에 대한 초월적인 인식이다. 충분히 개성화된 자기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새도우” 측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기에 빛을 조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전 인격 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수반한다. 그 때 우리는 단테처럼 공동의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 대한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해나 이상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주의 환기를 요한다. 겸손과 자기-인정의 조화로운 균형은 변형된 삶의 영위에 매우 필요하다.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인격과 소명을 통해 본인은 진정한 종교 체험을 양육해주므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격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도움을 제공하려고 애써 왔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격과, 그들 자신의 인간성과 연계시켜 주고, 그리고 또한 신적인 것에 연계시켜 줌으로 스스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집단 무의식, 특히 새도우에 대한 용의 초점은 개인적 변형과 사회적 변형을 통한 화해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용서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John Patton은 “용서란 부채를 취소해 주거나 어떤 특정한 과오를 잊어주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채무자 혹은 가해자가 나와 다르다기보다는 나와 같은 점이 더 많음을 인식하는 것이다”⁵⁷ 고 했다. 이것은 자기 의, 권력 그리고 특수성을 포기 항복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동료 인간들과 다르다기보다는 같으며,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받는 행위와 태도를 범할 잠재 가능성이 우리 속에 있음을

⁵⁷ John Patton, *Is Human Forgiveness Possible* (Nashville : Abingdon Press, 1985).

인식할 때, 그 때 우리는 우리의 새도우를 직면할 수 있게 된다. 목회적 돌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독특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과의 공통점을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다. 용서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사람은 우리 자신의 자기들인 것 같다. 융의 이론은 우리의 우리 자신과의 화해를 위한 희망을 제공한다. 화해의 개념은 개인적이지만 또한 집단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우리의 집단적인 새도우를 인식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 특히 억압당하는 자들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명령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 새도우와 집단적 새도우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편견들과 해를 끼칠 잠재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우리 자신과의 화해는 개인들, 집단들 그리고 국가들로서의 다른 이들과의 화해를 요한다.